

Intro > 강사 소개

- 닉네임은 PlanB
- AB180 백엔드 팀에서 API 개발 (2018. 08 ~)
- 코칭하는 걸 좋아함
 - 설리번 프로젝트 선생님 2회, 멘토 1회
 - Django Girls 워크샵 코치 2회
 - 대덕SW마이스터고 개발동아리 멘토 (2020 ~)
- 블로그 운영 중
 - '백엔드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함' 시리즈
 - 내게 실용적이었던 프로그래밍 공부 방법들

Intro > 강사 소개

- GitHub @JoMingyu
 - JoMingyu/Lets-Study

[리더]플랜비 오후 6:28

그리고 DB 배우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관련해서 몇가지 인사이트 줄 수 있을 것들 좀 가져왔습니다.
사실 여기 계신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,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 키워드를 드리는게 제일 좋을것 같아 이렇게 링크 +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인데, stackoverflow에 좋아요 많이 달린 답변들 찾아서 보는게 꽤나 도움이 됩니다. 네이버 지식인 레전드

- [인덱싱은 뭐하는거임?] <https://stackoverflow.com/questions/1108/how-does-database-indexing-work/1130#1130>
- [View 왜만듬?] <https://stackoverflow.com/questions/1278521/why-do-you-create-a-view-in-a-database/1278620#1278620>
- [Soft delete 좋니?] <https://stackoverflow.com/questions/2549839/are-soft-deletes-a-good-idea/2549843>
- [OLTP와 OLAP] <https://stackoverflow.com/questions/21900185/what-are-oltp-and-olap-what-is-the-difference-between-oltp-and-olap>
- [Covering Index] <https://gywn.net/tag/covering-index/>
- [Store procedure가 뭐임?] <https://stackoverflow.com/questions/459457/what-is-a-stored-procedure?lq=1>
- [Database selectivity] <https://idm.kr/blog/169>

Intro > 강의 소개

- 개발문서화와 협업
 - → **백엔드 팀 결성부터 프로젝트 완성까지**
- 프로젝트 팀 결성부터
 - i. 초기 세팅
 - ii. 의사결정
 - iii. 문화를 시스템화
 - iv. 개발 프로세스 안정화
- 다른 강의에 비해 비교적
 - soft skill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
 - 정답보단 의견을 위주로 전달. 기억하거나 외울 것이 적다
 - 나중에 다시 보러 와요. 발표 자료도 pdf로 올려드립니다!
 - 분량도 적다

Intro > 강의 소개

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가?

- 특징
 - 프로젝트 운영하고 실무에서 조직문화 가꾸고 했던 경험으로 만든, 실무에 가까운 정리
 - = 이론과 거리가 먼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(소프트웨어 공학에서 **하지 말라**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음)
- 이렇게 들어주세요
 -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강의 주제. 비판적인 사고로 봐 주세요.
 - 자신이 아는 방법이 더 낫다, 혹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!
 - 공유해주세요!
 - 저도 배우겠습니다.
 -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.
 - 흘러들어 주세요!

Intro > 기본적으로 통하는 원리

- 방법론이나 프로세스는 우리 팀에 맞는 방식을 찾는게 중요
- 조직 문화는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
- 여기서 정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조직엔 꼭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음

이번 파트에서 할 이야기

→ 팀 결성부터 친해지기까지

- 나중에 어떤 동료와 함께 일하게 될 지 모름
 - 주변 사람들이 다 최고일 수는 없는 노릇
- 유토피아같은 개발 조직은 없다
- 함께 자라기

→ [책도 있어요](#)

팀 결성! > 처음에 할 일은?

- 인사 해야죠!
-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.

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? 🙋

- 각자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됐는지
 - 교육과정 전에는 뭐 하고 살았는지
 - 내가 쓴 글 하나 자랑하기
 - 서로 GitHub나 SNS 공유하고, 팔로우하고, 구경하기
- 내가 무엇을 알려줄 수 있고, 배울 수 있을까?

팀 결성! > 처음에 할 일은? > 팀장 뽑기

- 추천 : PO(Product Owner)
 - Product의 방향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(아이디어의 주인)
 -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에는 매우 열정적임

- 익명 투표

각자 주관에 따라 어울리는 사람을 뽑기. 개인적으로는,

- i.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누가 가장 중재를 잘 해줄까?
- ii. 기술적으로 뛰어난 편인가?
- iii. 어떤 기술에 특히 편향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가?
- iv. 이 프로젝트에 진심인가?
- v. 말주변이 있는지 (어디 가서 프로젝트 소개도 하고, 발표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)
- vi. 팀장 일을 하느라 코딩을 덜 하게 되어도 괜찮을까?

팀 결성! > 처음에 할 일은? > 팀장 뽑기

- 누군가 팀장이 되겠다고 지원한다면?
 - 손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선뜻 팀장 자리에 앉히지 말자
 - '저 팀장 할래요' 보다,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도록 어필하자
- 팀장의 역할
 - 처음에는 '팀장' 란에 이름 올리는 형식적인 역할
 - 의사결정의 casting vote (후보들이 동률일 때 선택하는 것)
 - 중재, 멘탈 관리, 일정 관리, 상위 조직장에게 지원 요청(예산 등)
 - 윗사람 개념이 아님

팀 결성! > 처음에 할 일은? > mind alignment

- 팀원의 프로필은 알기 쉽지만 마인드는 알기 어려움
- 내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글과 comment를 공유하기
 - 되도록이면 엔지니어링 교양/마음가짐에 관련된 것
 - 아니면 그냥 나만 읽기 아까운 거 아무거나!
 - 감사님은요?
 - 소프트웨어 환멸감
 - 저도 이 글의 내용처럼, 충분히 최적화되지 않은 코드베이스가 쌓여나가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껴요.
 - 나는 어떻게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었는가
 - 번아웃을 한 번 겪고 나서, 압박과 부담을 떨쳐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일부러 일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서 빨릿(?)을 하는 편이에요.

여기까지 하면,

- 팀원들과 좀 친해졌을테고
- 팀장도 뽑았고
- 공유해준 글도 잘 읽어봤다!
- ... 실무는 다음 파트부터 천천히 출발합니다.